조기 은퇴를 앞둔 정주채 목사와 대담하다

서면대담 : 황대우(개혁주의학술원, 책임연구원)

Q 목사님, 내년에 조기 은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향상교회 후임도 이미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의 조기은퇴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하시고 싶은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저가 잠실중앙교회에 시무할 때 목사 장로의 임기를 65세로 제안한 것은 198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시무하고 1년 안식년을 가진 뒤 신임투표를 해서 재신임을 받으면 계속 시무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당시의 취지는 교회의 갱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잠실중앙교회가 큰 풍파를 겪으면서 생각해보니, 장로교 정치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이면서도 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위임목사가 되거나 시무장로가 되면 70세까지는 그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해 반성이나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계속 시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서 목사나 어떤 장로의 시무가 그 교회에 유익함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갈등이 깊어지고 증폭되다가 결국은 혼란과 갈등에 빠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목사나

장로가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바람에 교회가 극단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교는 대의정치 제도를 갖고 있고, 교회가 청빙한 목사와 교인의 대표로 선택된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치리합니다. 그런데 위임목사로 취임하거나 장로가 한번 장립하여 시무를 시작하면 그 후로는 역시 그들의 사역의 적합성과 대표성을 확인할만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았거나 또 어느 교인이 장로로 선택되었을 때는 교인수가 100명도 안 되었을 때인데, 교인들이 대다수가 바뀌고 교인들의 숫자도 몇 배나 불어났는데도 그 목사와 장로는 여전히 교인의 대표로서 당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또 위임목사와 시무장로는 임기가 없음으로 정년까지 그 시무가 보장되고, 그 정년이 70세까지인데 70세 정년은 현대의 어느 직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년입니다. 복음화 율이 매우 낮고 교회가 아주 약한 경우에는 – 지금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부득이 한 경우가 많지만, 현대 교회에서 70세 정년은 너무 길어 교회 리더십이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리더십이 개발되지 않아 지극히 보수화되거나 침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잠실중앙교회 당회는 당회원의 임기를 7년으로 정하고, 정년도 65세로 낮추자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 · 장로 모두 7년째 되는 해에 재신임을 물어 재신임이 되면 6년 더 계속 시무여부를 공동의회에서 묻기로 하였고, 단 장로는 1회에 한 하여 연임하도록, 그러니까 13년 시무하고 정년과 관계없이 은퇴하도록 하였습니다. 향상교회를 설립하면서는 정관을 만들었고, 장로님들이 신임투표를 받는 것은 부담스러운 점이 많다하여 시무투표 없이 9년 단임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결정에 따라 저도 65세에 은퇴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저가 65세까지 시무를 하고 은퇴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을 때 병약해서 50세까지만이라도 목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0세를 넘기면서 오히려 점점 건강해져서 이제 65세를 바라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섭섭하지 않느냐? 아직 일할 것이 많은데 교회로 보면 손실이 아니냐?"는 등 말씀들이 많은데, 저에게는 전혀 섭섭한 생각이 없습니다. 목회는 좋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이제는 자유롭게 또 자원해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의 조기은퇴가 다른 목사님들에게 부담이 되고, 무슨 압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 점은 좀 부담스럽고 마음이 쓰입니다.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목사후보생의 훈련에 참여하고 싶고, 또 이미 목사가 된 분들을 돕고 격려하는 일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과 교회갱신운동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Q 잠실중앙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봉사하시다가 담임목사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몇 년을 봉사하셨습니까? 같은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봉사하실 때와 담임목사가 된 이후에 무엇이 가장 달랐으며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답변 : 잠실중앙교회에 1982년 2월1일에 부임하여 그해 5월에 목사로 임직을 받아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부터 교회 안에 분규가 생겨 3년 동안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었는데, 하여간 저는 혹독한 시련을 당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분규가 계속되는 중에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이상하게 담임목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수습되고 부흥하게

되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땐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저에게는 그 말이 정말 형식적인 말이거나 인사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많이, 그리고 아주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만 저가 그때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었다면 "죽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날 새벽에 저는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무릎을 꿇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담임목사가 된 후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당시에는 워낙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담임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부목사 때 고생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저가 받는 사례금이 담임목사의 반 남짓밖에 되지 않아 불만이 있었는데, 담임이 되고 나서 일을 해보니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만약 일한 대로 사례금을 받는다면 세 배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목사는 퇴근이라는 게 없더군요. 집에 있으나 교회당 안에 있으나 항상 "근무 중"이니까요.

Q 잠실중앙교회가 목사님 계실 때 성장하고 부흥한 것으로 아는데 혹 목사님만의 특별한 목회지론이나 목회방법을 갖고 계신지요?

답변 : 저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뭔가 보여 줄만한 카리스마가 없어요. 목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이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데, 사실 저는 설교가 약하다는 생각 때문에 늘 고민하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몸부림을 치며 여기가지 왔는데, 그런 고통과 몸부림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어 별 내용 없는 설교라도 교인들에게 은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목회의 알파와 오메가는 설교임에 틀림없습니

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미래상 정립을 위해 전교인이 참여하는 컨센서스를 가졌습니다. 저가 1988년도에 첫 안식년을 가진 후 돌아와서 1989년에는 "2000년대의 잠실중앙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컨센서스를 가진 일입니다.

첫 번 모임은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교회의 미래상을 그리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밑천으로 해서 교회의 항존직 제직들과 모든 부서의 회장들(전도회, 주일학교, 찬양대, 청년회 등)을 모아 역시 교회의 미래상을 그리는 일을 했습니다. 부목사님 중 한 분이 교회의 지난 역사와 현황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저는 토의할 영역과 주제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목회철학이랄까 교회론이랄까 저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생각과 방향들을 제시하는 강의를 한 후 10명 정도씩 조를 나누어 토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여 조별발표를 하고 종합토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모두들 좋아하고 아주 열심들이었습니다.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이었고, 이것이 힘을 주고 열정을 일으킨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의견들과 의논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직회에서 발표를 하고 거기서 또 의견들을 청취한 후 그것을 팜플렛으로 만들어 전교인들에게 배포하였고,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전시회도 가졌다. 이것이 잠실중앙교회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 교회부흥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향상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와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미래상 곧 교회의 종합성장계획을 세우면서 나왔던 중요한 안건 중의 하나가 교회분립개척안이었습니다. 이

는 "교회가 양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될 때 교회당과 교육관 등 공간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나온 안이었습니다.

교육관은 일단 근처의 상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할지라도 본당은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이전해서 신축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실중앙교회 본당의 좌석은 650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600여명이 앉으면 더 이상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3-4부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1,500~2,000명이 맥시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 두 가지 방안 - 재건축과 이전 신축안 - 을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해 오던 방법대로 해야 할 것이냐? 제3의 방법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온 안이 교회분립개척안이었습니다.

분립하는 것이 좋은 점은 첫째 교회건물을 다시 짓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든든한 개척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21세기에는 대형교회보다는 건강한 중소교회가 더 바람직한 교회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립으로 교회 사이즈가 작아짐으로써 성도의 교제가 더욱 친밀해질 뿐 아니라 특히 제직들로 하여금 봉사와 사역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 저가 교회분립을 준비하면서 교회 앞에서 자주 했던 말입니다.

"교회분립은 복음의 확장과 교회성장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중소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대교회가 가진 장점들이 있지만 어려운 점, 문제점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21세기는 지도자 한 사람의 특별한 카리스마보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리더십이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고도의 기계문명 속에서 삭막함과 외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좀 더 가까운 접촉과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인간됨을 회복하고, 삶을 함께 나눌 진정한 공동체의 재건이 필요합니다. 분립을 통해 양 교회 – 모교회나 개척교회가 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논의와 함께 10년 안에 세 교회를 개척한다는 계획과 아울러 주일 낮예배 출석 성인교인수가 1,500명이 넘으면 교회를 분립한다는 안을 결정하였었습니다. 물론 분립이 아닌 일반 개척교회설립도 가능하면 교인들을 파송해서 분립개척의 방식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식 분립개척의 경우는 당회원(장로) 1/3 이상, 항존제직 1/3 이상, 교인수 1/3 이상을 파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도 교회의 재산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계획의 결과로 향상교회가 개척되게 된 것입니다.

Q 지금 향상교회의 위치가 처음 개척하실 때와는 다른 곳이고 성도 수가 급성장하여 지금의 교회터로 이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개척을 시작하신지 얼마만에 교회부지를 옮기게 되었으며 혹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은 없었습니까?

답변 : 사실 교회당 위치를 옮긴 것은 개척한지 5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이전하게 된 이유는 꼭 교회가 급성장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지도 결코 작은 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기는 거기다 교회당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하다가 그 부지를 팔고 다른 곳으로 교회당을 옮기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 매입한 가격보다 4배 이상 올랐었다 – 많은 교인들이 그 땅을 팔아 교회당을 옮기면 훨씬 더 넓은 땅에다 교회당을

짓고도 남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경제논리였지요.

그래서 그 땅이 팔리기도 전에 현재의 위치에 그 땅 크기의 배가 넘는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마련한 땅에다 교회당을 어떻게 짓느냐는 것으로 논란이 일어나 리더십 사이에 갈등까지 생기에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 부지가 팔리면 새 부지의 땅값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자. 그리고 건축은 본당과 소예배실 등만 새로 짓고 나머지는 기존 공장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소용되는 건축비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한다."는 제안을 해서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구 부지는 갑작스런 정부의 조치로 투기지역으로 묶여버렸고 그래서 아직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건축헌금도 건축비의 겨우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부채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작하였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전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리더십 부족이었습니다.

Q 목사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회철학이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 저가 이 이야기를 다하려면 책을 한 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2008년에 발간한『선한 목자의 꿈』(생명의양식사)에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잠실중앙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했다가 교회가 엄청난 갈등으로 수라장이 되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믿음과 비전도 함께 다 무너지는 처절한 아픔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저에게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주셨고, 그때의 체험과 결단으로 새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많은 책들을 읽으며 또 목회학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교회론과 목회학을 다시 공부하였고, 두 가지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 그 뜻대로 하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교회상을 찾아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결심대로 온전히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쳐 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세우는 운동을 6년째 하고 있는데 초대신약교회의 회복이라는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잠실중앙교회에 있을 때 저의 마음속에는 원한처럼 새겨진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 성경이 보여주는 그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교회론에 집중하였고, 논문주제는 소그룹에 관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 연구하면서 저가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소그룹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소그룹을 교회의 한 부분으로, 교인들을 케어하고 양육하는 목회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하였는데, 성경을 공부하다보니 소그룹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 교회상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난 후 저는 실제로 그런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열망이 너무나 강해서 열병을 앓았을 정도였습니다. (후에 가정교회를 알게 되면서 알았지만 그때가 바로 1993년 곧 최영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한 해였다.) 그래서 잠실중앙교회를 사면하고 약 열 가정 정도의 교인들과 함께 내가 발견한 바로 그런 교

회를 개척하려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였었습니다. (그 때 준비했던 교회가 지금 분당에 있는 매일교회이다)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이제 잠실중앙교회가 겨우 안정되었는데 담임목사가 개척한다고 떠나면 교인들이 얼마나 요동하게 되겠느냐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저는 엉거주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주위 선배 목사님들의 권고대로 기성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갱신해보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를 채택한 것과 교회분립정책을 세운 것들이 아마 이런 노력의 대표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가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된 것으로,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두 가지로 파악했습니다. 하나는 목사와 장로가 처음 가졌던 헌신적인 영성을 계속 유지하지 못 하고 권위주의에 빠짐으로 일어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목회자를 중심한 교회리더십들이 성장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두 가지 – 권위주의와 성장주의에서 벗어나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것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 교회의 양적 성장을 포기하는 일이 더 그랬습니다.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도 역시 이것은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교회를 건축하였는데 구 부지는 팔리지 않아서 부채를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성교인들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의 반대로 인한 어려움 뿐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에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새삼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가 많은 교인수를 포기하고 한 영혼의 구원에 집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만큼이나 어렵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분립하여 지금의 향상교회를 개척하던 주일, 나는 첫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이 다 돌아간 후 혼자 서재에 앉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통곡하듯 울고 또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해 흥덕 향상교회를 분립해서 교인들과 헤어지면서도 서로 끌어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던 중에 최영기 목사님을 면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저서를 통해 먼저 만났습니다만. 저는 그의 책을 읽으면서 반갑고, 놀라고, 그리고 질투까지 느꼈습니다. 그가 말하는 가정교회는 제가 1993년에 세우려고 생각했던 그 교회상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슴에 다시 불이 일어났습니다. 또 열병이 도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에게 수없이 타일렀습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너 나름대로 할 만큼 했어. 가정교회는 하나님이 최목사님을 시켜서 하게 하신거야. 남 흉내 낼 필요는 없어. 그리고 향상교회가 분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교인들에게 또 충격을 줄 필요는 없어. 또 네가 은퇴할 때도 멀지 않았어. 말년에는 하던 일도 정리하는 법이야. 가정교회를 세우려면 엄청난 고생과 수고를 해야 하는데 왜 너는 제대 말년에 사서 고생하려고 그러냐. 교회가 평안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젠 좀 즐겨라. 그건 죄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야. 목회도 고생만 하는 게 아니고 즐기며 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교회로 전환하기에는 이제 교회가 너무 커버렸어. 지금 갑자기 방향을 돌리는 것은 너무 위험해. 그건 무리야.'

아침저녁으로 바뀌는 저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며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는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007년 마지막 안식년에 DTS 훈련을 받으며 "또 한 번 십자가를 지자"고 저 나름대로는 "큰 결심"을 했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무라지는 않으실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식년에서 돌아오니 부목사들도 저를 부추겼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때 하지 못하면 향상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일은 끝입니다. 신약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부르

짖던 분이 안하시면 누가 할 겁니까?" 이렇게 해서 2008년부터 우리는 가정교회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Q 목사님께서는 바른교회아카데미 이사장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른교회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 여기에 대한 답은 앞에서 이미 했다고 생각됩니다. 약간만 덧붙인다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회자들이 성장주의의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주의는 목회자들이 명예와 권세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혹은 건강한 교회)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교회는 세 가지 면에서 그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멤버십입니다. 누가 교회의 멤버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매우 모호합니다. 이것이 교회 세속화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대강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는 리더십입니다. 이 부분도 거의 완전히 인본주의에 장악돼 있습니다. 직분은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셋째는 펠로우십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인데, 이 역시 갈등과 분열로 교회타락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교회아카데미에서는 교회갱신을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1. 그리스도의 주되심(the Lordship)을 확인한다. 2.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3. 행정의 민주화를 정착시킨다."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저가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 서기가 되어 목회자윤리강령을 초안했는데 거기다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Q 가장 중요한 목사의 조건 혹은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후배 목사들을 보면서 부러운 것과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후배 목사들에게 선배로써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답변 : 성숙한 인격과 성품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이를 보여주는 귀한 덕목들입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부러운 것은 앞날이 창창하게 열려 있고 많은 기회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목사 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입생 모집을 위해 애쓰는 신대원 교수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신대원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을 만나면 엄청 압력을 가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신학교에 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영 먹히지 않습니다.

Q 목사님께서는 고신목회자협의회(고목협)의 핵심 멤버 가운데 한 분이셨던 것으로 압니다. 고목협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역사와 의의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저는 고목협의 핵심 멤버가 아닙니다. 저는 윤희구 목사님이 1996년에 고신정신잇기운동을 시작하고 목회자협의회를 조직하려할 때 캐나다에서 안식년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소식을 듣고 그런 조직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자칫 정치적인 모임으로 전락할까 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도 고목협과는 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저의 관심은 오직 교회갱신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치하는 사람으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저래 가지고 결국 한 자리 하자는 것 아니냐?"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치를 피하며 교회를 갱신하는 일에만 몰두하자고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주의목회연구원(복목연)도 만들어보고 코람데오닷컴도과 미래교회포럼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보니 역시 정치 없이는 개혁운동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Q 현재 고신교단에는 옛날처럼 돼지파와 부곡파 같은 것은 없어졌고 대신에 그처럼 계파가 뚜렷한 것은 아니겠지만 통상 보수파와 개혁파로 나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할 때 목사님께서는 개혁파에 속하실텐데, 그것도 개혁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실세(?) 가운데 한 분이실텐데 교단 지도자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양분된 것이 혹 복음병원 경영문제와 관련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보수파와 개혁파의 가장 분명한 차이는 무엇이며 개혁파의 명분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개혁파가 세운 공과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복음병원 경영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가능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그렇게들 부르고 있더군요. 복음병원문제가 터지면서 어느 신문에서 만든 이름입니다. 저가 개혁파의 실세라니 고마운 평가입니다. 저는 정말 개혁을 해야 우리가 산다는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 한 일은 없습니다. 시끄럽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고통을 당하게 만든 공로(?)가 있다 할까요?

복음병원의 경영에 대해 저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경영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요. 저가 부르짖는 것은 경영을 잘하라 이게 아니라 도덕성의 회복입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와 똑 같이 해서 되겠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해복음병원의 도산과 복음병원의 부실은 경영상의 잘못이 아니라 도덕성 상실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가 교단설립60주년기념대회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만, 도산한 김해복음병원을 생각해보세요. 김해복음병원은 1981년에 부채 6억 원과 함께 인수한 병원입니다. 그러나 10년 만에 부채가 72억 원으로 불어났고, 다시 10년 만(2001년)에 180억 원으로 불어나는 등 주인 없는 부실경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김해복음병원은 본원(송도복음병원)으로부터 의료진(의사와 간호사)의 인적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영부실의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곧 탈법, 무법, 비윤리성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장부에도 없는 부외부채가 100억 원이 넘어있었습니다. 당시 김해복음병원의 이런 실상을 어느 정도라도 들여다보았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의 굴혈"이었다고까지 말하더군요.

이런 부실한 경영과 거기에 개재된 도덕적 타락이 최초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복음병원 경영진단팀에 의해서였습니다. 총회는 1998년에 복음병원의 경영을 진단키로 결의하였고 경영진단팀을 구성하여 파견하였던 것입니다. 경영진단 보고를 받은 총회는 김해복음병원을 "조속히 매각 처리하기로" 두 번이나 결의하고 확인까지 하였으나 이는 시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수파와 개혁파로 분열되는 갈등과 혼란을 겪었으며, 당시 학교법인 이사회는 총회의 결의를 불복하고 반대로 본원과의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혼란을 자초하여 합법적인 처리의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채권자들 – 주로 개인 사채권자들 – 을 보호하려하다가 오히려 부도가 나게 되었고, 김해복음병원은 해체 · 도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책임지고 수습하는 사람

도 없었으며, 그 도산의 잔재와 여파는 지금까지도 총회의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Q 현재 고신교단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들 세 가지만 말씀해주시고 그 현안들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우리 고신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가 좀 약하거나 약간 더딘 것이 다르다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로 목회자는 많이 배출되는데 비해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목사들이 임지를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전도사와 강도사는 모자라는데 목사는 남아돌아갑니다. 사이즈가 작은 교회들은 보조교역자를 구하지 못해 신학생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목사후보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고신대학교의 자립 발전의 과제입니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대학교들이 모두 당면하고 있는 위기입니다. 고등학생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이런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할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맨 파워도 약하고 재정력도 매우 약합니다. 재단(고신총회)에서 재정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구조조정도 시급한데,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는 목회자들의 자질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교인들의 지적 도덕적 수준에 비해 목사들의 자질은 크게 향상되지 않아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위는 추락하고 리더십은 거부당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나?"라

는 질문과 함께 "가나안"(역으로 읽으면 "안나가") 교인들이 늘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는 단답(單答)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추상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의 갱신과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신학교육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목회후보생들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신입생을 선발할 때부터 어디에다 내놓아도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선발해야 하고, 신학교 재정은 총회산하 전체 교회들이 힘을 합쳐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당백의 목사들을 배출해야 합니다. 목사후보생들의 수가 줄면 처음에는 수적 성장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불리할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은 십년도 채지나기 전에 확실하게 역전될 것입니다. 목사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Q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는 신대원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대원이 천안에 있습니다. 신대원을 천안으로 이전할 때는 수도권에서 목회자들을 수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대원을 독립시키기 위한 목적도 고려한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원 이전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고 혹 또한 신대원 이전 이후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저는 한상동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그 어른이 잘못하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려신학교를 부산에 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서울성원교회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성원교회는 흥천교회라는 이름으로 남산에 있는 YMCA 회관에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YMCA는 소위 적산가옥으로 그것을 불하받으면 교회도 신학교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평양에서 남하하여 서울에 들렸을 때 한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곳에다 신학교를 하자고 간곡히 설득하였지만 한목사님은 끝내 부산을 고집하셨다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교가 대도시에 있으면 자유주의 풍조에 쉽게 물든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특히 심군식 목사님이 쓴 전기에 보면 감옥에 계실 때 부산 다대포에서 빛이 나타나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꿈에 보았다고 하였는데, 그런 신비적인 체험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고려신학교가 서울에 있었으면 한국교회의 판도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고려신학교가 천안에 있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왕 수도권으로 올라올 때 더 올라왔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이전 후 장단점을 말하라 하셨는데, 어중간한 이전이어서 지정학적 장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가기만 힘들어졌다고 할까요. 합동신대학원대학교와 합동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만.

Q 이성구 목사가 신대원 구약학 교수로 재직했을 당시 신학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그 때 목사님께서는 총회 때마다 이성구 목사 편에 서서 구원투수를 자처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이성구 목사와의 개인적인 친분 외에도 혹 이성구 목사의 논문에 신학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까?

답변 : 저는 이 목사님의 논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가 귀국한 후 신대원에서 교수로 청빙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논문을 심사하다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논문을 대강 읽었었는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에게 해명서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그는 논문에서 전체 내용은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용어들에는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이 전매 특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별도 풋노트 없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국 같은 신학풍토에서 아모스가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정경이라는 사실을 변증하고, 그 본문을 보수적으로 주해한 것은 괄목할만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목사님이 자유주의 학자들과 싸워가며 그런 논문을 써야 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선배들의 관대한 이해를 구했더라면 처음부터 문제는 해결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당시는 이런 정도의 해명도 거부하였음으로 불씨가 남아 있었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준 것입니다. 농담이지만, 이목사님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손해 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가 이 목사님의 편을 든 것은 – 편들었다는 말이 이상합니다만 – 사람들이 그의 논문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총회를 향해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고 개혁운동을 하면서 미움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러다 보니 그를 제거하기 위해 새삼스럽게 논문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논문은 허순길 교수님이 원장으로 재직할 때 이목사님에게 해명성 논문을 쓰게 하여 문제점들에 대해 매듭을 짓고 교수로 임용까지 했는데 또 문제를 삼으니 순전히 정치적인 의도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저는 어떤 사람의 신학적인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인 문제는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다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Q 이성구 목사뿐만 아니라 양낙흥 교수, 최근에는 지명수 교수에 이르기까지 교수 개인의 신학 입장에 대한 불건전성과 부적합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신학교수의 학문적 자유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답변 : 학문적인 자유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학문의 자유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의 신학사상이 비성경적이고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교리에 어긋나는 사상이라는 혐의가 있을 때는 그것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학문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후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마녀사냥처럼 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Q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목회이력과 가족관계에 대해 가능한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저는 고신대 신학과 4학년이 되던 해부터 영주동교회(현 모자이크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고, 신대원을 졸업하기 직전인 1979년 11월에 서울성원교회의 전도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2월에 잠실중앙교회에 부임하였고, 그해 5월에 목사로 장립하여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985년도에 같은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 후 2000년 10월에 현재의 향상교회를 분립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잠실중앙교회에서 18년 9개월 시무했고 이곳에서 13년 째 시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 부부와 딸이 셋이었는데, 둘은 결혼하여 출가했고 막내딸은 미혼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사위는 목사로 임직하여 각각 분당샘물교회와 서울서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